

광주 모 대학 자격증 발급 부실행정

광주의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졸업예정자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학사행정팀이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광주 모 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유아교육과 학과 사무실은 지난 1월4일 졸업예정자 72명의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서식을 자격발급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에 접수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달 중순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서식과 다르다', '어린이집 실습시간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 등 이유를 들어 해당 학과 사무실에 신청 서류 보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과 사무실은 관련 내용을 졸업예정 학생들에게 수일 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실은 지난달 22일 한 교수가 한 학생에게 "졸업식 이전에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 같다.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과 사무실을 통해 뒤늦게 사실을 전해들은 해당 학생 45명은 서류 보환을 마쳤지만 자격증 발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린이집 교사 취업이 취소된 경우가 발생했다.

학생 A씨는 "학교를 통해 자격증 단체접수를 마쳤으며 당연히 졸업증서와 함께 받게 될 자격증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무급으로 일했다. 자격증 번호를 등록하면 이달부터 담임교사로 정규채용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자격증 발급이 늦어지면서 결국 채용이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식 가운데 보육실습확인서, 보육교사 1인당 학생 3명 이내 실습지도공문, 실습 유지원 인가 확인증은 실습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이 작성한 문서를 학과장을 거쳐 진흥원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또 발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서류 양식이 아닌 학과 사무실이 갖고 있던 자체 서식을 학생들에게 배부, 작성하도록 했다.

단체 접수한 보육교사 자격증 서식 미비로 반려 수일 간 수수방관...자격증 발급 안 돼 채용 취소

피해 학생들은 "실습 담당 교수의 자격증 관련 오리엔테이션도 형식적인 교육에 그쳤다. 자격증 발급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는 커녕 '최종 확인을 제대로 안한 학생 책임이다', '왜 어린이집에 취업하느냐'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당초 서류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은 행정 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지난달 23일 바로 개별 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 3월 초 연휴기간과 뒤이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파동으로 서류 보환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호 기자



몽돌해변에 쌓인 해양쓰레기 지난 24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경남 통영시 소재 연대도 해안에 바다에서 밀려온 각종 해양쓰레기들이 쌓여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 시작

내달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서 접수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접수가 25일 광주에서 시작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일제 전범기업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광주·전남 지역 거주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 모집 접수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접수 창구에는 소송참여와 관련한 방문·전화상담은 30여건 진행됐고 피해 증빙서류를 확인해 소송참여가 공식접수된 사례는 4건이었다.

집단소송 계획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접수 창구 등에 피해사실 접수와 관련 내용 문의는 140여건에 달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정모(65)씨는 "아버지가 1944년 9월 일제에

의해 남양군도에 위치한 비행장으로 끌려가 11개월 가량 강제노역에 동원돼 가슴·배 등지에 부상장해를 입은 사실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소송 참가자로 접수를 마쳤다.

정씨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동안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와 유족들의 접수를 받는다.

소송 참여대상은 3월 기준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심의, 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 등이

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군인·군속·학도병 동원 피해자 등은 제외된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등 피해사실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1통씩 준비하면 된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기준으로 청구 시효를 고려해 다음달 29일 안에 현존하는 일본 341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인 대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 피해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갖추는 절차도 함께 안내해 서류를 보완, 최대한 많은 소송 원고를 모으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헤어진 여친 흥기 협박 3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니다가 흥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중앙동 B(27·여)씨의 집에서 흥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함께 죽자'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3년 동안 사귀다가 최근 결별했으며, B씨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러 왔다가 다른 남성이 다녀간 흔적을 발견한 뒤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자 격분, 부엌에서 흥기를 가져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공장서 50대 근로자 추락 숨져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5일 인천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4분께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인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 A(57)씨가 12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채광판을 교체작업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주차차량 잇달아 훼손한 30대 입건

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타이어 등을 잇달아 훼손한 3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 59분께 부산 사상구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찢러 펄크를 내 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달 29일 오후 5시 34분께 사상구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된 승합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강력본드를 발라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잇달아 훼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게 보이스포싱 전화한 20대 검거

보이스포싱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포싱) 범행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포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현금 인출액 A(25)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48분께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청도서 지능팀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모 카페 사기 범행에 연루됐다고 겁을 준 뒤 현금 900만원을 인출해 지정한 장소에 나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A씨 등과 계속 통화를 하며 동료 경찰관과 함께 검거 계획을 세운 후 서울역까지 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전화를 건 상대가 보이스포싱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며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며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버스 내 취객 금품 훔친 60대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심야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A(6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자정께 부산 사하구에서 심야버스에 탑승, 술에 만취한 승객 옆에 앉아 벗어둔 의류와 지갑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한 추적으로 A씨를 검거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